

신안군, '한국섬진흥원' 유치 적극 나선다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설립 근거 마련 "대한민국 섬의 역사성·정책 성과·미래비전 모두 신안에 있어"

서삼석(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과 김일이(민주당, 목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나라 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연구, 진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은 신안군을 비롯한 섬 관련 지자체는 물론 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영도 최전방인 섬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은 물론 경제 유발효과 역시 크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따른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는

407억원, 부가가치효과는 27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79명에 달했다.

한국섬진흥원의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섬진흥원의 상징성과 기대효과 때문에 여러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신안군은 "섬이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역사적으로 신안의 섬들은 이 나라를 지켜왔고, 현재도 선진적인 섬 정책으로 섬 부흥시대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한국섬진흥원은 1004섬 신안에 그 동지를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1243년 몽골은

보급로를 끊어 고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전함 70여척을 동원해 압해도를 공격했지만 압해도 주민들이 이를 물리쳐 나라를 구했으며, 조선 태종 8년(1408년)에도 해적선 9척에 탄 왜구 수백명이 압해도를 침략했을 때도 이를 물리치고 섬을 지켜냈다"면서 "일제 강점기 전국적 농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농민운동 발화점 또한 압해도와 하의3도 등 신안의 농민항쟁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대중교통 공영제의 첫 시발지가 신안군"이라며 "신안군은 야간 여객선 최초 운영은 물론 완전 여객선 공영제로 가기 위한

'1000원 여객선'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섬 정책 선진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안군의 1도1미술관 정책은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 최대 여행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산을 강조할 만큼 매력적인 선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이 많아서 한국섬진흥원의 신안 유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섬의 역사성 그리고 섬 생태환경을 섬 발전의 기제로 적극 활용해온 성과 그리고 대한민국 섬이 나갈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 1004섬 신안 외에 어느 곳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국섬진흥원의 신안 설립 근거를 제시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3년 연속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 어촌지역 혁신성장 이끌 뉴딜사업 1개소 최종 확정

영광군은 해양수산부가 공모하는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응모하여 황철항 1개 지구에 사업비 67억(국비 47억, 지방비 20억)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300여 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SOC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2,300개 항·포구 중 총 300개를 선정한다.

영광군은 지난 3월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 어촌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연구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지난 수개월간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새로운 대상을 지속적으로 개발·응모하여 어촌의 기초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0,189대의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 2천여만 원을 12월 31일 납기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단, 1월 연세액 납부 차량 및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영암군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87대이며 1대당 지방교육세 포함 자동차세(비영업용)는 130,000원으로 저렴하게 부과된다.

군에서는 납세자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납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 일괄징수'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공원·산림시책 괄목할 성과 거뒀다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 숲, 전남도 아름다운 명품숲 최우수상 상반기 공원녹지과·도시문화재과 협업 통해 숲가꾸기 사업



목포시가 올 한해 펼친 공원·산림시책이 연말 각종 공모에서 잇달아 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 숲'이 전남도가 공모한 '2021년 방문해야 할 아름다운 명품 숲'에 당당히 선정돼 최우수상에 선정되고, '2020년 걷고 싶은 숲길'에 '고하도 이충무공 해변 숲길'로 장려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2021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 방제' 사업에 응모해 사업비 6천9백만원과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경관개선'을 위한 도비 1억원을 지원받는 쾌거도 거뒀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해변 곰솔 숲이 두 개의 상을 거머쥔 것은 올 상반기 공원녹지과가 도시문화재과와 협업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 결과이다.

'2021년 방문해야 할 아름다운 숲'에 선정된 고하도의 겨울 풍경은 대형 홍보달력과 포스터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목포 8경 가운데 하나인 '고도설송(高島雪松)'의 진가가 입증된 셈이다.

시는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투입해 수령 500년된 곰솔 280여 본에 대한 전정 작업을 통해 웅장하고 아름다운 명품 숲을 조성하고, 병해충 방제와 토양 이화학적 개선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한, 이충무공 유적비 경관사업 비로 조형물 등을 설치해 문화재와 연계된 명품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하도는 이충무공 유적지라는 역사성과 함께 웅장하고 아름다운 곰솔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며 "목포해상케이블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목화체험관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해 고하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숲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무안군,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낙지 생산회복 기대

무안군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1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0억 포함)을 투입하여 탄도만 일대에 낙지 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미낙지 갯벌 산

란장 조성과 서식환경 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낙지 생태에 적합한 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안 낙지가 지속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 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